

자가 지방을 이용한 성대 주입술의 예후 및 경과

손영익*, 박주현, 백정환, 이은경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성대내전이 불완전하거나 양측 성대간의 간격이 넓은 경우 애성이나 흡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paraffin, teflon, bovine collagen 등을 성대에 주입하여 왔으나 이물반응이나 육아종의 형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최근에는 자신의 지방이나 피부에서 추출한 교원질을 이용한 연구 및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 중 자가지방은 시술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흡수율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자의 하복부에서 흡인침을 이용하여 지방을 추출하고, 일측당 0.5-1.5 ml의 지방을 주입하였으며, 시술 후 평균 8개월 (4개월-12개월)까지 주관적 (애성, 흡인의 정도), 객관적 (Fo, MPT, Jitter, Shimmer) 지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성대마비와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의 경우 시술 후 3개월까지 주관적 만족 및 객관적 지표의 두드러진 향상을 보였으나 6개월 이후 악화되었다. 성대구증의 환자에서는 주관적 만족 및 객관적 지표의 변화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자가지방의 성대 주입술은 성대마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흡인과 애성을 해결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되었다.